

사회적 관계요인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정 규 석

(경성대학교)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허쉬(Hirschi)의 사회유대이론과 학교적응 영역의 기존연구를 토대로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관한 사회적 관계 모델을 제시하고 검증하는 것이다. 사회적 관계 모델에는 부모관계변인, 친구관계변인, 교사관계변인이 포함되었다. 연구 대상은 인문계 고등학교 재학생 351명과 전국 컴퓨터에 머무르고 있는 청소년 143명으로 총 494명이었다. 자료분석방법으로는 기술통계, 상관관계분석, 중다회귀분석이 사용되었다. 분석결과,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관한 사회적 관계 모델이 청소년의 전반적 적응과 학업적 적응(성적)을 설명하는 데 유의미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구체적으로는, 부모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친구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교사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청소년의 학교적응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가장 영향력있는 변인은 교사관계 변인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기초로 본 연구는 청소년의 학교적응을 높이는 방법으로서 교사·친구·부모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실제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학교적응, 사회적 관계, 부모관계, 친구관계, 교사관계, 허쉬, 사회유대이론

1. 문제제기

청소년들의 학교적응은 최근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어 왔다. 학교적응이란 학생이 학교라는 환경과 조화로운 관계를 맺고 있는 만족스러운 상태에서 학업을 포함한 학교생활전반에 대한 적응을 의미한다. 학교적응 여부가 청소년기 이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학교적응은 매우 중요한 사회적 이슈라고 볼 수 있다. 전교조 참교육실천협의회가 1999년 9월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졸업장이 아니라면, 학교에 다니겠는가?'라는 질문에 다니지 않겠다고 대답한 학생이 44%로 나타났다(김혜래, 2000). 이러한 조사결과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학생이 학교에

* 본 연구는 2003년도 경성대학교 특별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다니는 의미를 느끼지 못하는 학교부적응의 상태에 처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학교부적응은 학교가 학생의 능력 및 잠재력을 육성하는 데 있어 큰 장애요소가 되며, 많은 청소년 문제의 원인이 된다. 그 대표적인 예로 학교중퇴를 들 수 있다. 학교부적응의 결과로 많은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고 있으며 그 수는 작년 한 해만도 약 5만 5천명에 이르고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3). 학교중퇴는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많은 손실을 가져온다. 개인적 손실 측면에서 보면, 학교중퇴자들은 경제적, 심리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중퇴자들은 졸업자보다 취직하기가 더 힘들 수 있으며, 취직한다 하더라도 저임금을 받게 될 가능성이 더 높다(Snyder and Wirt, 1998). 또한 학교중퇴자는 자기비하감, 불안감, 인지적 장애, 우울증 등 여러 가지 심리적 장애를 겪을 가능성이 더 높다(Kaplan, Dampousse, and Kaplan, 1996). 학교중퇴는 개인적 비용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을 가져온다. 학교중퇴자는 비행이나 범죄를 저질러 사법 절차에 개입될 가능성이 더 높으며, 장차 복지수당과 실업수당에 의존할 가능성이 더 많아 사회비용을 증가시키게 된다(Catterall, 1987; Chavez et al., 1994).

이러한 개인적, 사회적 손실을 가져오는 학교부적응이 중요한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청소년의 학교적응도를 조사하고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많은 연구가 실시되었다(남영옥·김제한, 2003; 문은정·심희옥, 2001; 유선이·김광웅, 1999; Brooks-Gunn et al., 1993; Ekstrom et al., 1986). 지금까지 행해진 청소년 학교적응의 원인에 대한 논의는 개인관련 변인(개인 심리학적 변인)이나 가족·친구·학교 관련 변인 등 주로 사회적 관계—즉, 개인이 상호작용하며 살아가는 사회체계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다양하게 전개되어 왔다.

기존 연구에서 논의된 이러한 변인들은 학교적응의 원인을 규명하는 데 공헌해 왔으나 대부분 이론적 근거를 결여하고 있어 각 변인들과 학교적응간의 관계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없이 단편적인 관계만을 논의해 온 경향이 있다. 이러한 한계는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과 학교적응과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이론을 도입함으로써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허쉬(1969)는 많은 청소년들이 비행에 쉽게 빠져들지 않고 사회에 잘 적응하고 있는 이유를 사회 유대으로써 설명한다. 즉, 사회와의 유대가 강할수록 사회에 잘 적응하게 된다는 것이다. 허쉬는 사회유대를 전통적 체계에 대한 애착(Attachment), 전통적 목표에 대한 전념(Commitment), 전통적 활동에 대한 참여(Involvement), 그리고 전통적 가치에 대한 신념(Belief)의 네 가지 요소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전통적인 체계에 대한 애착이다. 전통적인 체계는 가족, 친구, 학교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체계와의 관계 즉, 부모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교사와의 굳건한 관계가 비행을 막아주고 사회에 잘 적응하게 한다고 본다.

허쉬의 가족, 친구, 학교와 같은 전통적인 체계에 대한 애착이라는 개념은 앞에서 청소년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논의된 가족, 친구, 학교 등의 사회적 관계 요인과 그 의미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청소년이 가족, 친구, 교사와 같은 사회적 관계에 대한 애착이 강할수록 학교에 잘 적응하게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허쉬의 사회유대이론을 이용하여 사회적 관계요인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자 한다. 먼저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관한 기존 문헌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연구모형을 구성하여 검증한 후 이를 기초로 청

소년의 학교적응을 제고하기 위한 효과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문헌고찰

청소년의 학교적응이 최근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청소년의 학교적응도를 조사하고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많은 연구가 실시되었다. 기존연구에서 다루어졌던 변인들은 크게, 개인관련변인, 가족관련변인, 친구관련변인, 학교관련변인의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1) 개인관련변인

개인관련변인은 개인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인으로 자아개념, 학업동기, 교육적 기대, 정서적 안정, 충동적인 행동을 통제하는 능력, 문제행동의 경험여부 등을 포함한다. 기존연구에 의하면, 자아개념이 긍정적일수록, 학업동기가 높을수록 즉, 목표지향적이며, 학업에 대한 가치가 높고, 자신의 학업능력에 대한 기대가 긍정적일수록, 심리적으로 안정될수록, 충동·공격성향이 낮을수록, 문제행동을 경험하지 않을수록 학교적응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용래·김태은, 2001; 남영옥·김재한, 2003; 문은식·김충희, 2002; 문은정·심희옥, 2001; 신나나·도현심, 2000; Brooks-Gunn et al., 1993; Ekstrom et al., 1986; Rumberger, 1983; Wehlage and Rutter, 1986).

2) 가족관련변인

가족관련변인은 가족관계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인으로 가족 구성원간의 응집성, 부모-자녀관계, 부모의 슈퍼비전과 자녀양육방식 등을 포함한다. 선행연구에서는 가족의 정서적 유대와 지지가 높을수록, 부모와의 관계가 우호적이고 지지적이며 만족스러울수록, 부모의 자녀에 대한 슈퍼비전이 많을수록, 자녀양육방식이 민주적일수록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문은식·김충희, 2002; 최지은·신용주, 2003; Alpert and Dunham, 1986; Astone and McLanahan, 1991; Dornbusch et al., 1987; Lamborn et al., 1991; Steinberg et al., 1989).

3) 친구관련변인

친구관련변인은 친구관계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인으로 친구와의 긍정적 관계, 친구와의 갈등, 문제성향이 있는 친구와의 교제 등을 포함한다. 친구관계는 학교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서 친구의 사회정서적 지원 기능을 높게 지각할수록, 친구와의 관계가 우호적이며 만족스러울수록, 학급

내에 서로 친한 친구의 수가 많을수록 학교생활 전반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내나, 친한 친구들과의 갈등이 많을수록 학교적응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문은식·김충희, 2002; 문은정·심희옥, 2001; 유선이·김광웅, 1999; 이은혜·김정윤·오원정, 2001; 최지은·신용주, 2003; Alpert and Dunham, 1986; Ekstrom et al, 1986; Rumberger, 1983).

4) 학교관련변인

학교관련변인은 학교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인으로 교사에 대한 태도, 교사와의 관계, 학교분위기 등을 포함한다. 학교교사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교사와의 관계가 우호적이고 지지적이며 만족스러울수록, 학교의 분위기가 민주적이고 긍정적일수록 학생들이 학교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용래·김태은, 2001; 남영옥·김제한, 2003; 문은식·김충희, 2002; 최지은·신용주, 2003; Martin, 1981)

이상의 기존연구들은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대한 다양한 변인의 영향력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주요한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다양한 변인 가운데서 청소년이 형성하고 있는 사회적 관계, 즉 부모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그리고 교사와의 관계가 학교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사회적 관계의 영향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단편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즉, 어떤 연구는 부모관계변인만을 다루고, 다른 연구는 친구관계변인만을 다루고 있어 사회적 관계요인의 종합적인 설명력이나 개별 관계변인의 상대적 중요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부모관계변인, 친구관계변인, 그리고 교사관계변인을 종합하여 연구모형을 구성하였다.

둘째,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대상을 학생으로 국한시키고 있다. 그러나 연구대상을 학생으로 제한시켰을 경우 가출, 자퇴, 체적 등의 이유로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은 체계적으로 배제되게 되는데, 실제로 학교부적응을 경험한 청소년 가운데는 재학 중인 학생도 있겠으나 여러 이유로 학교에 정상적으로 출석하지 못하는 청소년, 즉 기존 연구에서 체계적으로 배제되어 오던 청소년일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재학생뿐만 아니라 가출 청소년, 중퇴 청소년도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표집의 대표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을 고등학교 재학생 집단과 가출 청소년 집단의 두 집단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이 두 집단이므로 모델 검증에 있어 교차타당화의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셋째, 앞서도 논의된 바와 같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관한 기존 연구는 연구모형의 구성에 있어 대부분 이론적 근거를 결여하고 있어 독립변인과 학교적응변인간의 체계적인 설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는 허쉬(Hirschi)의 사회유대이론을 활용하여 연구모형을 구성하였다.

허쉬(1969)는 많은 청소년들이 비행의 유혹에 빠져들지 않고 사회에 잘 적응하고 있는 것은 사회와 강한 유대를 맺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즉 청소년이 사회와 유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유대가 청소년이 비행에 빠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말한다. 사회와의 유대가 강하면 강

할수록 결과적으로 사회에 잘 적응하게 된다는 것이다. 사회유대는 전통적 체계에 대한 애착(Attachment), 전통적 목표에 대한 전념(Commitment), 전통적 활동에 대한 참여(Involvement), 그리고 전통적 가치에 대한 신념(Belief)의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애착은 한 개인이 다른 사람과 형성하고 있는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전통적인 사회체계와 강한 애착을 형성할수록 청소년은 비행을 저지르지 않게 된다. 전념은 교육적이거나 직업적인 성취와 같은 전통적인 목표의 추구에 몰두하는 것으로, 전통적인 야망이나 열망이 비행을 예방한다고 보는 것이다. 참여는 전통적인 활동에의 참여를 의미하며, 청소년이 학교활동과 같은 전통적인 활동에 많이 참여할수록 비행을 저지르지 않게 된다. 신념은 전통적인 가치나 규범의 수용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비행을 금지하는 전통적 규범을 수용할수록 비행의 가능성이 줄어든다고 한다.

이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전통적인 체계에 대한 애착이다. 전통적인 체계 중 부모, 친구, 학교는 개인이 유대를 형성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회체계들이며, 이러한 체계와의 관계 즉, 부모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교사와의 굳건한 관계가 청소년의 비행을 막아주고 사회에 잘 적응하게 한다고 본다. 애착은 사회유대의 다른 세 가지 요소에도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 부모 및 교사와의 좋은 관계는 청소년의 교육적, 직업적 목표설정에도 큰 도움을 주며, 건전한 교육적, 문화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한다. 또한 부모 및 교사와의 좋은 관계는 그들이 가진 사회적 가치를 청소년들이 내면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된다.

허쉬의 사회유대이론은 청소년 행동문제에 광범위하게 적용되어 왔으며 수많은 실증적 연구들이 사회유대이론을 지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Gardner와 Shoemaker(1989)는 버지니아의 중·고등학생 733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비행행동을 연구한 결과 사회유대이론의 예측대로 애착과 전념, 참여, 신념으로 측정된 사회유대가 강할수록 비행행동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했다. 또한 Rouse와 Eve(1991)는 텍사스와 주변 지역의 비행여학생 90명을 대상으로 학교문제, 성문제, 약물문제, 범죄행위 등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여 부모나 교사에 대한 애착, 교육적 목표에 대한 전념, 전통적 활동에의 참여, 인습적 신념은 이러한 비행행동과 부적상관을 가진다는 것을 밝혔다. 그 외에도 수많은 연구들이 청소년 비행에 관한 Hirschi의 사회유대이론을 지지해 왔으며, 그러한 연구들에 의하면 대체로 네 가지 유대변인 가운데 애착이 가장 중요한 변인으로 밝혀졌고, 그 중에서도 부모에 대한 애착이 일관되게 중요한 변인으로 밝혀져 왔다(Krohn and Massey, 1980).

이상과 같은 허쉬의 사회유대이론은 학교적응의 영역에서는 거의 검증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유대이론 중 전통적인 체계(부모, 친구, 학교)에 대한 애착이라는 개념을 이용하여 청소년의 학교적응을 설명하기 위해 부모, 친구, 교사와의 사회적 관계요인에 초점을 둔 연구모형을 구성하였다. 이 모델은 통제변인인 성별, 학년, 나이, 자아존중감과 독립변인인 부모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그리고 교사와의 관계변인을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검토할 것이다. 첫째, 사회적 관계모형이 학교적응을 설명하는 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의 여부, 둘째, 다른 모든 독립변인들을 통제했을 때, 각각의 변인이 유의미한지의 여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교적응을 설명하는 데 있어 개별 변인의 상대적 중요도를 검토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학교적응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3.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는 재학중인 청소년뿐만 아니라 특수한 환경에 있는 청소년 집단을 포괄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재학중인 청소년과 가출하여 전국의 쉼터에 머무르고 있는 청소년을 연구대상에 포함시켰다. 학교 청소년에 대한 설문조사는 부산 소재 남·여 인문고등학교 각 1개교씩 2개교를 선정하여 학교에서 실시하였다. 쉼터청소년에 대한 설문조사는 가출청소년을 보호하고 있는 전국의 청소년쉼터(서울, 인천, 경기, 강원, 대전, 충청, 전라, 광주, 대구, 경상, 부산, 제주)를 대상으로 우편 또는 현장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설문지는 학교청소년 설문지 360부, 쉼터청소년 설문지 145부가 회수되었으나 불성실한 응답과 결측치 등으로 인해 11부가 제외되어 최종적으로는 학교 설문지 351부, 쉼터설문지 143부, 총 494부가 본 연구에서 사용되었다. 자료는 2002년 10월부터 2003년 2월까지 5개월에 걸쳐 수집되었다.

2) 변인의 측정

(1) 종속변인의 측정

본 연구의 종속변인은 학교적응도인데 전반적 적응도와 학업적 적응도(성적)로 구성하였다. 전반적 적응도는 나는 지금의 학교생활에 만족하고, 계속 지금과 같은 학교생활이 유지되었으면 좋겠다 등의 긍정적인 질문과 나는 학교생활이 지루하게 느껴진다 등의 부정적인 질문을 포함하여 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응답자가 전반적 학교적응을 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측정 도구에 대한 본 연구에서의 내적 신뢰도 계수는 .77이다. 학업적 적응도(성적)는 4단계로 구분하여 1-10등, 11-20등, 21-30등, 그리고 31등 이하로 측정하였다. 분석시 1: 31등 이하 2: 21-30등 3: 11-20등 4: 1-10등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응답자의 성적이 좋은 것을 의미하도록 역코딩하였다.

(2) 독립변인의 측정

① 부모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는 응답자와 부모와의 친밀감, 인격적 관계 등에 관한 12개 문항에 대한 응답으로 측정하였다. 허쉬의 사회유대이론에 근거하여 구성하였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5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응답자의 부모와의 관계가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신뢰도 계수는 .94이다.

② 친구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는 Hudson이 제작한 IPR(Index of peer relations)을 사용하였다. 이 측정 도구는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5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친구와의 관계가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신뢰도 계수는 .93이다.

③ 교사와의 관계

교사와의 관계는 응답자와 교사와의 친밀감, 교사에 대한 태도, 교사의 응답자에 대한 태도 등에 관한 11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5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교사와의 관계가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신뢰도 계수는 .94이다.

(3) 통제변인의 측정

통제변인으로 인구 통계학적 변인인 성별, 학년, 나이, 그리고 자아존중감을 포함시켰다. 자아존중감은 독립변인인 사회적 관계와 종속변인인 학교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김용래·김태은, 2001; 신나나·도현심, 2000) 점을 고려하여 통제변인에 포함시켰다. 자아존중감은 Coopersmith가 제작한 자아존중감척도(Self-Esteem Inventory)를 축약하여 사용하였다. 이 측정 도구는 총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5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신뢰도 계수는 .82이다.

3) 자료분석

응답자의 학교적응도를 살펴보고 사회적 관계요인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서 기술통계분석, 상관관계분석, 중다회귀분석이 활용되었다. 자료분석은 먼저 학교청소년 자료와 쉼터청소년 자료 각각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 후, 자료를 통합하여 전체 청소년 자료에 대한 분석도 실시하였다.

4. 연구결과

1) 연구대상의 학교적응도와 사회적 관계에 관한 기술통계

<표 1>은 본 연구에 참가한 청소년들의 남녀별 평균나이와 학교적응도를 보여주고 있다. 학교청소년의 경우 평균나이는 17.5세였고, 쉼터청소년의 경우 16.1세로 나타났다. 표에서 제시하듯이 두 집단의 평균나이 차이는 1세 정도로 쉼터청소년이 약간 어리지만 범위에는 차이가 많아 쉼터의 경우, 10

세부터 21세까지 연령층이 다양한 청소년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학교청소년의 전반적 학교적응도는 평균 2.77점으로 중간 적응도 점수인 3점보다 낮아 전반적 적응도가 다소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업적 적응도인 성적은 평균 2.90점으로 3단계(11-20등)에 근접하였다. 남학생의 경우 전반적 적응도와 성적은 각각 2.80점, 2.91점이었고 이러한 점수는 여학생에 비해 다소 높았으나 큰 차이는 없었다.

컴퓨터청소년의 경우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전반적 학교적응도는 평균 2.63점으로 중간 적응도 점수인 3점보다 낮아 전반적 적응도가 다소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적은 평균 1.95점으로 2단계(21-30등)에 근접하였다. 남학생의 전반적 적응도는 2.80점으로 여학생의 점수에 비해 다소 높았으나 큰 차이는 없었다. 학교청소년집단과 컴퓨터청소년집단을 비교해 보면, 전반적 적응에서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거나, 성적에서는 1단계 정도의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 연구대상의 평균나이와 평균학교적응도

		나이평균	n	최소나이	최대나이	전반적 적응	성적
학교	남	17.62	178	16	19	2.80(0.65)	2.91(0.92)
	여	17.45	171	16	18	2.74(0.67)	2.89(0.96)
	합계	17.54	349	16	19	2.77(0.66)	2.90(0.94)
컴퓨터	남	16.15	55	10	21	2.80(0.68)	1.94(1.05)
	여	16.13	87	11	21	2.53(0.78)	1.95(1.06)
	합계	16.13	142	10	21	2.63(0.75)	1.95(1.05)

<표 2>는 본 연구에 참가한 대상자들을 집단별(학교, 컴퓨터)로 구분하여 각 변인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하고 있다. <표 2>에 의하면 학교청소년의 경우 자아존중감은 보통정도(3.02)를 나타내었다. 부모와의 관계(3.67)나 친구와의 관계(3.77)는 보통정도를 상회하고 있는 데 반해, 교사와의 관계는 뚜렷이 낮은 것(2.63)을 알 수 있다.

<표 2> 집단과 성별에 따른 각 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

		남자		여자		합계	
		M	SD	M	SD	M	SD
학교 청소년	자아존중감	3.01	0.64	3.02	0.56	3.02	0.60
	부모관계	3.72	0.67	3.62	0.76	3.67	0.72
	친구관계	3.68	0.47	3.86	0.49	3.77	0.49
	교사관계	2.77	0.78	2.48	0.75	2.63	0.78
컴퓨터 청소년	자아존중감	2.79	0.70	2.64	0.63	2.70	0.66
	부모관계	2.38	0.89	2.50	0.81	2.46	0.84
	친구관계	3.37	0.55	3.50	0.66	3.45	0.62
	교사관계	3.11	0.98	2.77	1.02	2.90	1.01

웹터청소년은 자아존중감은 보통정도보다 약간 낮은 수준(2.70)이었고, 부모와의 관계에서 낮은 평균(2.46)을 보여준다. 이에 반해 친구관계는 보통을 상회하는 수준(3.45)이었고 교사와의 관계는 보통 정도에 근접하였다(2.90). 학교청소년에 비해 자아존중감이나 부모와의 관계 면에서 평균이 낮은 것을 알 수 있으며, 교사와의 관계는 학교 청소년보다 더 좋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중다회귀분석

(1) 학교청소년집단

먼저 각 변인간의 관계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표 3>에서 보듯이 본 연구에 사용된 여러 변인간의 상관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아존중감과 친구관계(.50), 교사관계와 전반적 적응(.45)과의 상관이 상당히 높았다. 일부 상관계수들의 경우 낮은 상관(예를 들어 -.12, .16 등)임에도 불구하고 유의미한 것으로 밝혀진 것은 본 연구에 참가한 학교청소년의 사례수가 상당히 많은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n=351). 독립변인들간의 상관이 매우 높은 경우(약 .70 이상) 다중공선성 문제의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으나 <표 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변인들은 다중공선성 문제가 의심되는 정도의 상관관계를 보이지는 않았으며, 공차(Tolerance)와 상승변량(VIF)을 점검한 결과, 다중공선성이 문제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표 3> 변인들간의 상관관계(학교청소년 자료, n=351)

변인	1	2	3	4	5	6	7	8
1. 성별	--	-.07	.01	-.07	.19***	-.18**	-.01	-.05
2. 학년		--	.07	-.04	-.04	-.08	.01	-.12*
3. 자아존중감			--	.34***	.50***	.24***	.19**	.34***
4. 부모관계				--	.38***	.29***	.25***	.34***
5. 친구관계					--	.16**	.14*	.37***
6. 교사관계						--	.23***	.45***
7. 성적							--	.20***
8. 전반적 적응								--

*p<.05 **p<.01 ***p<.001

다음으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잔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잔차의 정상성, 동변량성, 독립성을 만족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문제가 없는 자료임이 밝혀졌다. <표 4>에는 통제변인(성별, 학년,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관계요인(부모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그리고 교사와의 관계)이 학교청소년의 전반적 학교적응을 어느 정도 설명해 주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중다회귀분석의 결과가 요약되어 있다. 중다회귀분석의 결과, R²의 값이 .32로, 성별, 학년, 자아존중감, 부모관계,

친구관계, 교사관계가 학교청소년의 전반적 학교적응 변량의 32%를 설명해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R^2=.32, p<.001$).

독립변인들(부모관계, 친구관계, 교사관계)은 모두 유의미한 예측변인으로 밝혀졌으며 통제변인 가운데 성별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 특히 교사관계의 β 값이 .35($p<.001$)로 가장 높게 나타나 교사와의 관계가 청소년의 전반적 학교적응 정도를 가장 잘 예측해 주는 것이 확인되었고, 다음으로 친구관계, 부모관계 순으로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인 가운데 학년은 음부호(-)를 가진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나 청소년들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밝혀졌다.

요약하면, 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반적 학교적응도를 검토해 본 결과, 성별, 학년, 자아존중감, 부모관계, 친구관계, 교사관계라는 변인들이 결합하여 전반적 학교적응 변량의 32%를 예측해 주었으며, 성별을 제외한 모든 변인들이 유의미한 것으로 밝혀졌다.

<표 4> 전반적 학교적응에 대한 중다회귀분석의 결과(학교청소년 자료, n=338)

변인	B	SEB	β	R^2
성별	-.03	.06	-.02	
학년	-.09	.04	-.09*	
자아존중감	.13	.06	.11*	.32***
부모관계	.11	.05	.11*	
친구관계	.27	.08	.20***	
교사관계	.30	.04	.35***	

* $p<.05$ *** $p<.001$

다음으로 부모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그리고 교사와의 관계가 학교청소년의 성적을 어느 정도 설명해 주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역시 성별, 학년, 자아존중감을 통제변인으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5>에는 중다회귀분석의 결과가 요약되어 있다. 중다회귀분석의 결과, R^2 의 값이 다소 낮은 .10으로, 성별, 학년, 자아존중감, 부모관계, 친구관계, 교사관계가 학교청소년의 성적 변량의 10%를 설명해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R^2=.10, p<.001$).

독립변인들 가운데 부모관계($\beta=.16$)와 교사관계($\beta=.17$)가 성적에 대한 유의미한 예측변인으로 밝혀졌으며 통제변인들과 친구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성별, 학년, 자아존중감, 그리고 사회적 관계요인들은 학교청소년의 성적을 그다지 잘 예측해 주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5> 성적에 대한 중다회귀분석의 결과(학교청소년 자료, n=332)

변인	B	SEB	β	R ²
성별	.07	.10	.04	
학년	.03	.07	.02	
자아존중감	.18	.10	.11	.10***
부모관계	.21	.08	.16**	
친구관계	-.00	.13	-.00	
교사관계	.21	.07	.17**	

p<.01 *p<.001

(2) 쉼터청소년집단

<표 6>은 각 변인간의 상관계수를 요약하고 있다. 표에서 보듯이 쉼터청소년 자료에서도 본 연구에 사용된 여러 변인간의 상관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청소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교사관계와 전반적 적응(.47), 자아존중감과 친구관계(.37)와의 상관이 높았으며, 자아존중감과 전반적 적응과의 상관(.40)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표 6>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독립변인들간에 다중공선성 문제가 의심되는 정도의 상관관계는 보이지 않았다.

<표 6> 변인들간의 상관관계(쉼터청소년 자료, n=143)

변인	1	2	3	4	5	6	7	8
1. 성별	--	-.01	-.11	.07	.10	-.16	.01	-.17*
2. 나이		--	.11	.04	.08	-.10	-.07	-.10
3. 자아존중감			--	.18*	.37***	.21*	.15	.40***
4. 부모관계				--	.19*	.24**	.12	.20*
5. 친구관계					--	.06	.07	.22**
6. 교사관계						--	.16	.47***
7. 성적							--	.27**
8. 전반적 적응								--

*p<.05 **p<.01 ***p<.001

<표 7>에는 전반적 학교적응도에 대한 성별과 나이, 자아존중감, 부모관계, 친구관계, 교사관계가 쉼터청소년의 전반적 학교적응도를 어느 정도 설명해 주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중다회귀분석의 결과가 요약되어 있다.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잔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쉼터청소년 자료 역시 잔차의 정상성, 동변량성, 독립성을 만족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문제가 없는 자료

임이 밝혀졌다. 전반적 학교적응 변량을 설명하는 R^2 의 값은 .34($p < .001$)로 나타나 학교청소년 자료 ($R^2 = .32$, $p < .001$)와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독립변인들 가운데 교사관계($\beta = .37$, $p < .001$)가 가장 예측력이 높은 변인으로 밝혀진 것은 학교청소년의 경우와 같았으나, 학교청소년 자료에서는 성별을 제외한 모든 변인이 유의미한 예측변인으로 밝혀진 반면, 쉼터청소년 자료에서는 교사관계와 자아존중감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전체 설명변량(R^2)은 비슷한 것으로 보아 쉼터청소년들에게는 교사관계와 더불어 자아존중감이 학교청소년들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

<표 7> 전반적 학교적응에 대한 중다회귀분석의 결과(쉼터청소년 자료, $n = 142$)

변인	B	SEB	β	R^2
성별	-.15	.11	-.10	
나이	-.04	.03	-.10	
자아존중감	.32	.09	.28**	.34***
부모관계	.04	.07	.05	
친구관계	.13	.09	.10	
교사관계	.27	.06	.37***	

** $p < .01$ *** $p < .001$

다음으로 부모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그리고 교사와의 관계가 쉼터청소년의 성적을 어느 정도 설명해 주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중다회귀분석의 결과, R^2 값(.05)과 각 변인들의 β 값이 모두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성별, 학년, 자아존중감, 부모관계, 친구관계, 교사관계로는 쉼터청소년의 성적 변량을 유의미하게 예측해주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아마도 쉼터청소년들의 성적이 전반적으로 낮아 변이성이 부족함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인 것으로 추측된다.

(3) 전체 청소년집단

<표 8>은 학교청소년자료와 쉼터청소년자료를 합한 전체자료의 각 변인간의 상관계수를 요약하고 있다. 전체 자료에서는 본 연구에 사용된 거의 모든 변인간의 상관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아마도 사례수가 늘어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학교청소년자료와 쉼터청소년자료에서와 마찬가지로 자아존중감과 친구관계(.49), 교사관계와 전반적 적응(.44)과의 상관이 가장 높았다. 역시 독립변인들간에 다중공선성 문제가 의심되는 정도의 상관관계는 보이지 않았다.

<표 8> 변인들간의 상관관계(전체, n=494)

변인	1	2	3	4	5	6	7	8
1. 성별	--	-.10*	-.05	-.09	.12**	-.16**	-.06	-.10*
2. 나이		--	.18***	-.29***	.15**	-.14**	.17***	-.03
3. 자아존중감			--	.36***	.49**	.19***	.25***	.37***
4. 부모관계				--	.39***	.13**	.39***	.29***
5. 친구관계					--	.08	.20***	.32***
6. 교사관계						--	.13**	.44***
7. 성적							--	.24***
8. 전반적 적응								--

*p<.05 **p<.01 ***p<.001

<표 9>에는 각 통제변인과 독립변인들이 결합하여 컴퓨터청소년의 전반적 학교적응 정도를 어느 정도 설명해 주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중다회귀분석의 결과가 요약되어 있다. 간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체 학생의 자료는 간차의 정상성, 동변량성, 독립성을 만족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자료임이 밝혀졌다. 전반적 학교적응 변량을 설명하는 R²의 값은 .32(p<.001)로 나타나 학교청소년 자료(.32), 컴퓨터청소년 자료(.34)와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성별을 제외한 모든 변인들이 유의미한 변인들로 밝혀졌으며 교사관계($\beta=.35, p<.001$)가 가장 예측력이 높은 변인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이 자아존중감(.19), 친구관계(.18) 순이었다. 컴퓨터청소년 자료보다 사례수가 더 많은 학교청소년 자료에서 자아존중감보다 친구관계가 더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자료의 회귀분석에서 자아존중감의 β 값이 친구관계보다 커진 것은 컴퓨터청소년들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자아존중감의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표 9> 전반적 학교적응에 대한 중다회귀분석의 결과(전체, n=491)

변인	B	SEB	β	R ²
성별	-.07	.05	-.05	
나이	-.04	.02	-.08*	
자아존중감	.21	.05	.19***	.32***
부모관계	.09	.03	.12**	
친구관계	.22	.06	.18***	
교사관계	.28	.03	.35***	

*p<.05 **p<.01 ***p<.001

다음으로 부모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그리고 교사와의 관계가 전체청소년의 성적을 어느 정도 설명해 주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역시 성별, 학년, 자아존중감을 통제변인으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0>에는 그 결과가 요약되어 있다. 중다회귀분석의 결과, R^2 의 값이 .17로, 성별, 학년, 자아존중감, 부모관계, 친구관계, 교사관계가 학교청소년의 성적 변량의 17%를 설명해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R^2=.17, p<.001$).

독립변인들 가운데 부모관계(.32)가, 통제변인 가운데 자아존중감(.10)이 성적에 대한 유의미한 예측변인으로 밝혀졌으며 나머지 변인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 학교청소년의 성적을 가장 잘 예측해 주었던 교사관계는 전체학생의 성적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지 못하였고, 자아존중감의 경우 학교청소년의 성적은 유의미하게 예측하지 못했으나 전체학생의 성적은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전체학생의 성적은 부모와의 관계가 가장 잘 예측해 주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성별, 학년, 자아존중감, 그리고 부모관계, 친구관계, 교사관계는 전체청소년의 성적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예측해 주었으나 실제적 의미에서 볼 때 설명변량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표 10> 성적에 대한 중다회귀분석의 결과(전체, n=483)

변인	B	SEB	β	R^2
성별	-.01	.09	-.00	
학년	.05	.03	.06	
자아존중감	.17	.08	.10*	.17***
부모관계	.36	.06	.32***	
친구관계	.02	.10	.01	
교사관계	.09	.05	.08	

* $p<.05$ *** $p<.001$

5.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고등학교 재학생인 청소년과 가출하여 전국의 쉼터에 머무르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적 관계요인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것이었다. 성별, 학년, 나이, 자아존중감을 통제변수로 하여 부모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교사와의 관계가 청소년의 전반적 적응과 학업적 적응(성적)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하여 기술통계, 상관관계분석, 중다회귀분석이 사용되었다.

분석을 통한 주요결과와 이러한 결과가 학교적응의 제고에 주는 실천적 함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분석결과, 사회적 관계요인, 즉 부모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교사와의 관계가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요인임이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학교청소년의 경우 전반적 적응

에 세 변인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으며, 성적에는 교사관계와 부모관계만이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 전반적 적응과 성적 모두에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변인은 교사 관계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와도 일치한다(최지은·신용주, 2003). 컴퓨터청소년의 경우 교사관계 변인만이 전반적 적응에 대하여 유의미한 영향을 보였다.

전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를 보면 전반적 적응과 관련하여 세 변수 모두 유의미하였고 상대적 중요도의 순서는 교사관계, 친구관계, 그리고 부모관계의 순이었다. 성적과 관련하여서는 부모관계만이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청소년의 학교적응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사, 친구, 부모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 주며, 또한 현재 시범실시 중인 학교사회사업의 방향성을 시사하고 있다. 첫째, 교사와의 관계는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주는 관계로 나타났다으며, 친구·부모와의 관계에 비해 낮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교사와의 관계를 개선시키기 위한 개입이 필요하다. 개입의 방향으로는 교사의 지도방식을 처벌위주가 아닌 선도위주의 방식으로 변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또한 교사와 학생간의 대화의 장을 늘려 관계 개선을 위한 기회를 가져야 할 것이다. 교사를 대상으로 의사소통훈련에 초점을 둔 학생과의 관계향상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도 유용할 것이다.

둘째, 친구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공동체 의식 향상을 위한 학급개입프로그램, 학교 내의 생일 축하 이벤트나 문화 활동의 활성화가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또래상담자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소외되어 있거나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지지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부모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부모로 하여금 자녀의 긍정적인 면들을 지지·격려하고,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효과적인 갈등해결에 이를 수 있도록 돕는 부모교육이 유용할 것이다. 종합하면, 효과적으로 청소년의 학교적응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상과 같은 교사·친구·부모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후속연구를 통해 보완되어야 할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표집의 대표성 문제이다. 비록 이 연구에는 인문고등학교 학생집단과 전국 쉼터에서 거주하는 청소년집단이라는 두 집단이 연구대상으로 사용되었으나 학생집단이 남·여 인문고등학교 학생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전체 고등학생 혹은 청소년으로 일반화하기 어렵다.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인문계, 실업계, 중퇴청소년, 가출청소년 등 다양한 집단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로는 이 연구의 제한점이라기보다는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독립변수를 사회적 관계요인에 국한시켜 학교의 훈육제도와 학교문화와 같은 잠재적 중요성을 가진 변수를 연구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다. 후속연구에는 이러한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잠재적 중요성을 가진 변수를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상과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허쉬의 사회유대이론을 기초로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관한 사회적 관계모델을 제시하여 그 유용성을 검증하고, 결과에 기초하여 부모·친구·교사와의 관계를 변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청소년의 학교적응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하겠다. 날로 새로워지고 다양해지는 청소년의 욕구를 고려할 때, 학교적응의 이슈는 그 중요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측되며, 이에 따른 대처방안을 모색하는 체계적인 연구가 계속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교육인적자원부. 2003. 교육통계연보. 교육인적자원부.
- 김용래·김태은. 2001. “학업/비학업자아개념, 학교태도 및 학교적응간의 관계 탐색”. *교육연구논총*, 18: 3-46.
- 김혜래. 2000. “학교복지적 측면에서 본 ‘학교붕괴’ 현실과 대책”. *학교사회사업*, 3: 25-50.
- 남영옥·김재한. 2003. “알코올중독자를 부모로 둔 청소년 자녀의 심리사회적 특성과 학교적응유연성과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0(1): 199-221.
- 문은식·김충희. 2002.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심리적 변인들의 구조적 분석”. *교육심리연구*, 16(2): 219-241.
- 문은경·심희옥. 2001. “아동의 친한 친구와의 관계와 자아지각 및 학교적응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22(4): 99-113.
- 신나나·도현심. 2000. “청소년의 자아개념에 대한 부모-자녀관계와 학교생활 적응간의 상호작용효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47: 99-113.
- 유선이·김광웅. 1999. “아동의 우정지각과 학교적응과의 관계”. *생활과학연구지*, 14: 85-106.
- 이은혜·김정윤·오원정. 2001. “아동의 또래지위 및 친구관계와 학교적응의 관계”. *아동학회지*, 22(1): 1-18.
- 최지은·신용주. 2003.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 관계, 또래 관계, 교사와의 관계가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1(2): 199-210.
- Alpert, G., and R. Dunham. 1986. “Keeping academically marginal youth in school.” *Youth in Society* 17(4): 346-361.
- Astone, N., and S. McLanahan. 1991. “Family structure, parental practices and high school comple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6(3): 309-320.
- Brooks-Gunn, J., G. Guo., and F. Furstenburg. 1993. “Who drops out of and who continues beyond high school? A 20 year follow-up of urban black youth.”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3(3): 271-294.
- Catterall, J. 1987. “On the social costs of dropping out of school.” *The High School Journal* 71: 19-30.
- Chavez, E. L., E. R. Oetting, and R. C. Swaim. 1994. “Dropout and delinquency: Mexican-American and Caucasian non-Hispanic youth.”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3(1): 47-55.
- Dornbusch, S., R. Ritter, R. Leiderman, D. Roberts, and M. Fraleigh. 1987. “The relation of parenting style to adolescent school performance.” *Child Development* 58: 1244-1257.
- Ekstrom, R. B., M. E. Goertz, J. M. Pollack, and D. A. Rock. 1986. “Who drops out of high school and why? Findings from a national study.” *Teachers College Record* 87(3): 356-373.
- Gardner, L., and D. J. Schoemaker. 1989. “Social bonding and delinquency: A comparative analysis.” *Sociological Quarterly* 30: 481-500.
- Hirschi, T. 1969. *Causes of delinquency*.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Kaplan, D. S., K. R. Damphousse, and H. B. Kaplan. 1996. “Moderating effects of gender on the

- relationship between not graduating from high school and psychological dysfunction in young adulthood."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8(4): 760-774.
- Krohn, M. D., and J. L. Massey. 1980. "Social control and delinquent behavior: An examination of the elements of the social bond." *Sociological quarterly* 21: 529-543.
- Lamborn, S., N. Mounts, L. Steinberg, and S. Dornbusch. 1991. "Patterns of competence and adjustment among adolescents from authoritative, authoritarian, indulgent, and neglectful families." *Child Development* 62(5): 1049-1065.
- Martin, D. L. 1981. *Identifying potential dropouts: A research report*. Frankfort, KY: Kentucky State Department of Education, Office of Research and Planning. (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ED 216 304).
- Rouse, L. P., and R. A. Eve. 1991. "Explaining delinquent behavior among adolescent girls: Internal social control and differential association." *Clinical Sociology Review* 9: 161-177.
- Rumberger, R. W. 1983. "Dropping out of high school: The influence of race, sex, and family background."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20(2): 199-220.
- Steinberg, L., J. Elman, and N. Mounts. 1989. "Authoritative parenting, psychosocial maturity and academic success among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60: 1424-1436.
- Snyder, T., and J. Wirt. 1998. "Compendium: The condition of education, 1998" [On-line] Available: <http://nces.ed.gov/pubsearch/pubsinfo.asp?pubid=98013>.
- Wehlage, G., and R. Rutter. 1986. "Dropping out: How much do schools contribute to the problem." *Teachers College Record* 87: 374-392.

Impact of Social Relations on Youth School Adjustment

Jung, Kyusuk
(Kyungsu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nstruct and test a social relation model of youth school adjustment, based on Hirschi's social bonding theory and the previous findings in the area of youth school adjustment. The social relation model included parent-child relation, peer relation, and teacher-student relation variables. The sample consisted of two groups, 494 adolescents: 351 high school students and 143 adolescent residents at the shelter for runaways. For data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The main finding was that the social relation model of youth school adjustment was significant in explaining the general school adjustment and academic performance. Specifically, the better relations with parents, peer, and teachers, the higher the degree of youth school adjustment. Among the significant variables, teacher-students relation was the most important variable.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provided some practical suggestions to effectively enhance the relations with teachers, peer, and parents.

Key words: school adjustment, social relation, parent-child relation, peer relation, teacher-student relation, Hirschi, social bonding theory

[접수일 2003. 12. 26 게재확정일 2004. 1. 15]